

‘09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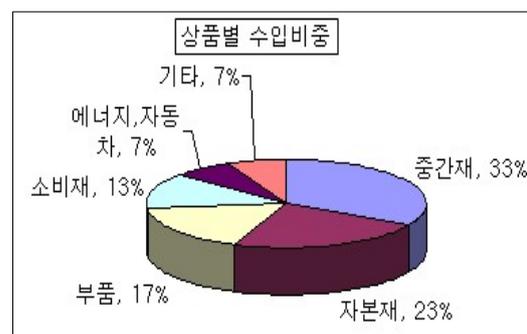
- 아르헨티나 통계청(INDEC)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총 무역규모는 446억 3,86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27.6% 감소
 - 총 수출액 272억 49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.7% 감소하였으며 총 수입액은 173억 88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.3% 감소
 -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약 85% 증가한 98억 6,100만 달러로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인한 수입의 감소규모가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의 감소규모를 훨씬 능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
아르헨티나 ‘09년 상반기 무역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구 분	2008. 상반기	2009. 상반기	증감율
무역규모	61,678	44,639	△27.6%
수 출	33,505	27,250	△18.7%
수 입	28,173	17,389	△38.3%
무역수지	5,332	9,861	84.9%

- 2009년 상반기 주요 수출품목은 농축산물 39%, 제조품 31%, 1차 상품 19%, 에너지광물 11% 등으로 차지한 반면, 상반기 주요 수입품목비중은 중간재 33%, 자본재 23%, 부품 17%, 소비재 13%, 에너지 및 자동차 7% 차지



- 2009년 상반기 한국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3% 감소한 1억 9,349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3억 1,709만 달러를 기록

(단위 : 천 달러)

	2008년 상반기	2009년 상반기	증감율
수 출	288,560	193,494	△32.9%
수 입	302,662	317,090	4.8%
무역수지	△14,102	△123,596	-

자료원 : KITA

- 현재 아르헨티나는 환율, 재정흑자, 농축산물 수출세, 해외차관, 경제정책의 투명성 등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, 아르헨티나의 구조조정이나 공공지출 확대가 지속될 예정이나 신중플루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 적자가 지속될 전망
 - 2010년 채무이자 60여 억 달러 상환 여부에 대외기관들의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
 - 농업계는 농산물 수출세 중 콩 수출세 35%를 10%로, 밀, 옥수수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공업계에서는 세금삭감 등을 요구
 - 재계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책 등 경제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, 통계청의 공식물가통계의 조작시비문제 해결을 요구

< 사옹파울루 사무소 제공 >